

이중 국적의 목적

정부가 '고급 인재' 확보를 위해 이중국적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30일 이명박 대통령이 참석한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국외 고급 인력 확보를 위해 이중국적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난 15일 뉴욕 동포간담회에서 "이중국적 허용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중국적 허용은 병역 기피 문제와 맞물려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법무부는 '제한적 이중국적' 부여 대상은 △우수 외국인 △병역 의무를 이행한 비자발적 외국국적 취득자를 뜻한다고 밝혔다. 최첨단 과학기술자 등 고급인재 외국인이 귀화할 뜻이 있는 경우와 태어날 때부터 이중국적이었거나 부모를 따라 외국국적을 얻은 사람 가운데 병역의무를 다한 경우에 이중국적을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법무부 출입국 관리 정책관 은 "이중국적이 병역기피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비자발적 외국국적 취득자로 대상을 제한하고 병역의무까지 마쳐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 관계자는 "조만간 공청회를 열고 오는 11월 이중국적 허용 관련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겨레 신문 2008년 5월 1일 기사 일부분

저는 몇 달 전 어느 한 세미나에 참석하여 이중 국적을 취득한 그리스 계 변호사와 얘기를 나눴는데 가장 인상 적인 것은 그가 설명하는 여행 방법이었습니다. 그는 여행 할 때 항상 두 여권을 가지고 다니는데 호주 출국 때는 호주 여권을 사용하고 그리스 입국 때는 그리스 여권을 사용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당연히 그리스에서 호주로 올 때는 그 반대로라 하여 생각 해 보니 당연 하지만 그 당시 아주 재미있다고 느꼈습니다.

호주 시민권을 약 20 년 전에 부모님 따라 획득한 저로서는 한국 정부가 이중 국적 허용을 검토 한다는 위의 기사에 관심이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관심이 가면서도 이중 국적의 그 무엇이 저나 저의 조국에게 좋은 일이나고 물으신다면 뭐라고 대답할 지 모르겠고 그냥 소외돼지 않고 소속 된 것이 좋지 않냐는 막연한 생각 이기에 이 지면을 통해 제 생각을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하나 밝히자 하는 것은 저는 병역의무를 치르지 않았기에 이 기사 내용 대로 이중 국적법이 입법 된다면 이중 국적은 저 같은 사람 하고는 관계 없는 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제가 고급 인력이라고 인정 받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만약 병역의무 조건이 상황 짐작이 되어 저에게도 기회가 온다는 씨나리오 안에서 생각을 해 보겠습

니다.

제가 이중 국적자가 되면 그 당장 한국에 나가 직장 사업을 차리고 한국에서 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 대학교 동기 중 현재 한국에 살고 있는 그 들은 비자 때문에 조금 번거롭기는 해도 큰 문제 없이 사는 것을 보여 왔기에 이중 국적 허용으로 만으로는 큰 변화가 있으리라 생각은 안 합니다. 그리고 1999년도 경에 도입된 재외국민 거소 신고 증 제도는 저 처럼 한국 국적으로 태어나 외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들에게 주민등록증 정도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중 국적을 부여 한다 해도 저 같은 사람 에게는 크게 다른 점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에게 중요한 것은 저에게 이중 국적이 허용 됨으로써 저의 자식들에게도 허용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저의 자식들의 태도가 큰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저의 아이들은 한국에 관심도 있고 또 부모가 한국계 이라는 것을 묵묵히 인정 하며 자라 왔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본인 들이 호주국적의 가짐을 알고 있기에 한국은 호기심의 한 나라 일 뿐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한국 국적이 부여 된다면 모든 것이 달라 질 것 같습니다.

제가 느끼기로 한국 정부가 가장 신경을 쓰고 우리 편으로 만들어야 할 사람들은 교포 일세나 1.5 세대 들보다는 2세 들입니다. 왜냐면 그 들이 진정으로 이 나라 에서 영향력을 발휘 하고 한국에게 이득을 가져다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만약 우리 한국인 2세나 3세가 호주 무역 장관이 되어 한국과 협상을 한다면 그가 자라면서 보고 느낀 한국이라는 나라의 이미지가 얼마나 큰 역할을 하게 될지. 만약 그가 자기가 갖고 있는 이중 국적을 떼뒀하게 여기고 그것을 원원 전략을 같다 줄 수 있는 큰 장점으로 호주사회에게 나타낼 수 있다면 그 것은 양국 사회에 큰 도움이 될 것 입니다. 이것이 바로 대범하고 대국 적인 생각이라 느낍니다.

물론 병역 기피를 위해 외국 국적을 따는 사람들이 알미운 것은 사실이나 그리 생각하면 이민 간 사람들이 다 미워 보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어린 나이에 이민 오면 그 나라 시민권 취득은 당연한 것인데 그러한 사람들을 병역 기피만을 위해 다른 나라 국적을 따는 사람들과 똑같이 취급하는 실수를 범하지 말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리하여 저는 위 기사의 입법안은 필요 이상으로 제한을 두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외국 교민 자녀 대 부분이 제외되는 입법안이니까요.

그래서 저는 한국 정부 에게 이 문제를 잘 검토하여 우리 민족 디아스포라에게 파격적으로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다 줄 수 있는 개념을 우리 스스로 차단하는 실수를 범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알리고 싶습니다. 이중 국적 제도가 첫 단계로 표적 해야 할 사람들은 세계 각 선진국에서 자라나고 있는 우리 교민들의 2세들 이니까요.